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기대주 임은수(한강중)가 18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활짝 웃는 '한국 피겨'

女 싱글 임은수 시니어 그랑프리 5차 銅...김연아 이후 9년만에 메달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기대주 임은수(한강중)가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임은수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5.57점, 예술점수(PCS) 62.34점으로 자신의 개인 최고점인 총점 127.91점을 받았다.

그는 전날 얻은 쇼트프로그램 57.76점을 더해 최종 총점 185.67점으로 알리나 자기토바(225.95점), 소피아 사모두로바(198.01점) 이상 러시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 여자 선수가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건 건 2009년 김연아 이후 9년 만이다.

한국 피겨는 지난날 남자 싱글 차준환(휘문고)이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남자 싱글에서 2개

대회 연속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임은수가 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제2의 부흥기를 맞는 분위기다.

임은수는 경기 후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올 시즌 처음으로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 출전했는데, 2주 동안 2개 대회에 나서 체력적으로 약간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값진 결과가 나와 기쁘다"라고 밝혔다.

임은수는 전지훈련지인 미국 LA로 이동해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음 달 초 귀국해 국내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한편 남자 싱글에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일본 하뉴 유히루가 총점 278.42점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김여울 기자

## TIGERS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롯데와 연습경기 3-5 패  
폭투·수비 등 실책이 패인  
총괄코치 '15초간 대화' 지시  
선수 서로 이름 외치며 과정 복기  
소통 통해 전력 극대화 훈련

KIA 타이거즈가 '소통'에서 답을 찾았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KIA 선수단은 18일 킨 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연습경기를 가졌다. 전날 자체 흥행전을 갖고 캠프 첫 실전에 나섰던 KIA는 이날은 롯데와 힘겨투기를 하면서 앞선 훈련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결과는 3-5, KIA의 패배였다.

# KIA, 소통에서 답을 찾다

KIA 선발로 나온 홍건희가 1회 3안타를 허용했고, 우익수 실책까지 기록되면서 먼저 2실점을 했다.

3회에는 KIA의 두 번째 투수 이준영이 롯데의 발 빠른 나경민의 번트 타구를 직접 잡아 1루로 던졌지만 타자 주자의 발이 빨랐고, 공도 뒤로 빠졌다. 이어진 조홍석의 번트 때도 실책이 나오면서 무사 1-3루. 이준영은 정준혁의 유격수 병살타로 투아웃을 잡아냈지만 1실점을 했다.

5회에는 KIA의 세 번째 투수 박정수가 첫 타자 이찬건에게 우측 2루타를 맞은 뒤 땅볼과 우익수 플라리로 투 아웃을 만들었지만, 폭투로 4번째 점수를 했다.

롯데 선발 김건국의 퍼펙트 행진에 막힌 KIA 타선은 4회에도 바뀐 투수 차재용에게 삼자범퇴를 당했다.

5회 첫 타자 황대인도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전은석이 박준태의 우중간 3루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0'의 침묵을 깼다. KIA는 이창진과 이은총 그리고 최원준의 안타까지 묶어 3-4로 추격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9회 나온 투수 이민우가 2사에서 대타 정보근의 2루타와 이찬건의 적시타로 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3-5 패배로 끝났다.

승패가 중요한 연습경기는 아니지만 패배로 가는 과정이 좋지 못했다.

초반 실점 장면에서는 아쉬운 수비들이 있었다. 상대의 빠른 타자들의 번트 때 연달아 실책이 나왔

고, 도루와 폭투도 허용했다.

경기가 끝난 후 꽤 긴 시간 미팅을 하고 경기를 복기한 KIA 선수들은 김민호 야수 총괄코치의 지휘 아래 각자 포지션으로 이동했다.

김 총괄코치가 "15초간 대화"라고 지시를 하자 선수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베이스 커버 등을 외치면서 경기장을 떠돌아다녔다.

투수진을 뒤돌아서서 한 뒤 "이들을 뒤돌아보게 하라"는 미션도 내렸다.

미션을 받은 수비수들은 투수의 백업버나 이름을 목청껏 외쳤다. 후배들 입에서 이번 캠프의 최고참인 "박경태"라는 이름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정신없이 전개되는 경기 상황 속에서 '소통'을 하며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특별 훈련이었다.

선·후배 상관없이 그라운드에서는 같은 동료로 경기에 집중하고, 타자·주자 그리고 경기 상황에 맞게 발 빠르게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발휘하고 힘을 합치라는 의미였다.

김 총괄코치는 마지막으로 "넥스트 플레이가 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날 경기를 통해 배우고 발전해야 할 점을 선수들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

전체적인 틀에서 경기를 보고 '소통'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엑스트라 훈련. KIA는 오는 24일 삼성 라이온즈와 이번 마무리캠프 마지막 연습 경기를 갖고 롯데전 패배의 교훈을 되새길 예정이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오키나와 캠프 롯데와 연습경기에서 박준태가 5회말 우중간 3루를 친 후 전력 질주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제대' 윤완주 "오자마자 근육 테이핑부터 배웠어요"

### 캠프 T 특독

▲KIA 와서 제일 좋아요 = KIA 타이거즈의 투수 차명진이 부활의 캠프를 보내고 있다. 효천고 출신의 그는 지난 2014년 1차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기대주다. 하지만 팔꿈치 수술 이후 군 복무 그리고 다시 부상에 시달리면서 아직 1군 무대에 데뷔를 하지 못했다. 몸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차명진은 18일에는 볼펜에서 50개의 공을 던지는 등 이번 캠프에서 피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웃은 차명진은 "KIA 입단해서 지금

제일 몸 상태가 좋은 것 같다. 내년 시즌에는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바이러스다 = 끝나지 않은 수비 훈련이었다. 18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에 앞서 진행된 수비 훈련. 황은호, 최원준, 오정환, 황대인, 류승현 등 내야수조가 김민우 코치의 평고를 받았다. 김 코치가 "모든 선수가 완벽하게 공을 받으면 훈련을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마지막 주자인 최원준에서 자꾸 공이 빠졌다. 그리고 이내 다른 선수들의 실수가 이어지면서 선수들 입에서는 "(실책)바이러스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빨리 훈련 끝내자"고 한목소리를 낸 선수들은 마지막 최원준까

지 집중해서 공을 처리하면서 어렵게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제일 먼저 배웠어요 = 야수조들에게는 특별한 루틴이 있다. 타격 훈련 시간을 앞두고 야수조들은 봉대와 다양한 근육 테이핑을 동원해 손에 대공사를 한다. 세심하게 겹겹이 테이핑을 하는 야수들. 강도 높은 타격 훈련이 진행되면서 손바닥이 성할 날이 없는 만큼 테이핑으로 물집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막 KIA로 복귀해 뒤늦게 캠프에 합류한 '에비루' 윤완주는 "캠프에 오자마자 이인행이 방에 찾아와서 이것부터 가르쳐 주더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24일 어린이 야구교실

KIA타이거즈가 24일 어린이 야구교실을 연다. 이번 야구 교실은 합평 KIA 챌린저스 필드 그라운드와 실내 연습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2018년 KIA타이거즈 어린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참가 신청은 19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어린이 회원 번호 입력 후 예매 가능)에서 하면 된다. KIA 홈페이지(https://www.tigers.co.kr)를 참고하거나, 마케팅팀(070-7686-8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KT, 이강철 감독·이승용 단장체제 출범

kt wiz가 '이강철(52) 감독·이승용(47) 단장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kt는 18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이강철 감독 취임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승용

신임 단장도 출사표를 올렸다. 이강철 감독은 "도전, 협업, 시스템 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겠다. 나만의 지



이강철 감독

식에 의지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분석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kt는 10월 20일 "이강철 감독을 3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3년, 조건은 총 12억원이다.

이승용 단장은 10월 18일, 단장으로 선임됐다. 한 달 동안 업무 파악을 한 이승용 단장은 이강철 감독 취임식에서 단장으로서의 첫 공식 행사를 치렀다. /연합뉴스